

# 일제시대 화이트칼라의 임금격차

## -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 퇴직사망대장 분석, 1918~1944 -\*

선재원\*\* · 손병돈\*\*\* · 박 현\*\*\*\*\*

###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개인별 인사기록 데이터의 장점을 살려 일제시대의 학력 간 및 민족 간 임금격차의 시계열 실태를 밝히고, 1940년대 전반의 민족 간 임금격차의 요인을 생산성 요인과 민족적 차별을 포함한 기타요인으로 분해하여 밝히는 것이다.

일제시대 재직연수별 학력 간 임금격차는 일본인의 경우 근속 후반부에 격차가 확대되었고, 조선인의 경우 학력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었으며 중반이후 확대되기 시작했다.

재직연수별 민족 간 임금격차는 축소되어갔는데, 중등학력의 경우는 조선인의 월급이 일본인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고등학력의 경우에는 조선인의 월급이 일시적으로 일본인을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해방직전까지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한편 근속연수별 중등학력의 민족 간 임금격차는 재직연수별 추이와는 달리 근속연수 전반부에 축소와 확대를 기록한 뒤에 격차가 거의 없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후반부에 확대되었다. 고등학력의 경우 근속연수 전반부에 일시적으로 축소된 뒤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민족 간 임금격차가 큰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임금격차분해 모형에 기초하여 민족 간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1940년대의 조선인 행원과 일본인 행원간 임금격차는 생산성차이보다 민족차별에 등에 의한 임금격차가 훨씬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1940년대 조선인행원과 일본인 행원간 임금 격차의 28.6%는 생산성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71.4%는 생산성과 무관한 요인, 즉 민족 차별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일제시대, 화이트칼라, 임금격차, 민족차별, 임금격차분해모형, 조선식산은행, 퇴직사망대장, 마이크로데이터

\* 이 논문은 2016년 경제사학회 춘계학술대에서의 토론(홍석철 교수, 서울대)과 본 학술지 익명의 심사의견에 의해 개선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sun@ptu.ac.kr, 제1저자.

\*\*\*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bdson@ptu.ac.kr, 공동저자.

\*\*\*\*\* 대한민국의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hpak72@hanmail.net, 공동저자.

## I.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개인별 인사기록 데이터의 장점을 살려 일제시대 191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전반까지의 학력 간 및 민족 간 임금격차의 시계열 실태를 밝히고, 1940년대 전반의 민족 간 임금격차의 요인을 생산성 요인과 민족적 차별을 포함한 기타요인으로 분해하여 밝히는 것이다.

일제시대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는 허수열(1981)에 의해 진일보되었다. 허수열(1981)은 일제시대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임금을 추계하여 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10년대보다 1920~30년대에 상회하고 있으나, 조선인이 대부분인 불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10년대보다 1920~30년대에 하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우연·차명수(2007)는 조선인 불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의 상승추세를 발견했으며, 김낙년·박기주(2010)는 불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도 상승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 간, 성별, 숙련과 불숙련, 직종 간 임금격차도 대체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상의 연구는 일제시대 임금격차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크게 공헌했지만 동일한 학력, 직종, 경력일 경우에도 발생하는 임금격차의 실태를 밝히지 못했고 민족 간 임금격차의 요인을 생산성 요인과 민족차별을 포함한 기타요인으로 분해하여 밝히지 못했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조선식산은행에서의 임금격차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 Moskowitz(1979)가 있다. Moskowitz(1979)를 민족 간 임금격차 축소를 강조한 연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점을 지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족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그 구조가 해방 전까지 해체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최초로 발굴하여 분석한 정병욱(2003; 2007)은 새로운 계급으로 탄생한 샐러리맨 식산은행원이 직면한 은행기관의 동화정책과 그 과정에서 겪는 차별의 양면성을 잘 드러내었다. 선재원(2010)은 조선식산은행 인사제도와 운용을 우리나라 최초의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정으로 파악하여 그 과정에서 형성된 룰이 해방 후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조선식산은행의 '퇴직사망대장'을 분석하여 학력별 임금격차의 장기추세를 밝힌 차명수 외(2014)는 조선식산은행의 임금이 내부노동시장에 의해 결정되었기에 외부노동시장에 비해 경직적이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해방 후의 임금조사와 연결하여 한국 금융업의 학력별 임금격차의 장기추세를 추정하였다. 즉 고등학력자의 임금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축소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별 인사데이터의 장점을 살려 조선식산은행 임금격차의 재직연수별 근속연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그동안 데이터 부재로 분석이 불가능했던 일제시대 동일한 학력, 직종, 경력 소유자의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격차의 실태와 요인을 시계열 분석과

Oaxaca모형으로 토목건축노동자의 민족별 임금격차의 요인을 생산성 요인과 민족적 차별을 포함한 기타요인으로 분해한 김종한(1998)에 의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데이터

〈그림 1〉 행원 인적사항 기록

族稱	出身校名	姓職住保證 名業所人	姓職住保證 名業所人	全	上	備	考
平民	明治四十二年 香川縣立坂出町高等學校卒業	京城府	咸鏡南道元山府旭町	慶尚北道浦項面浦項洞本町		明治四十二年 慶尚農工銀行見習 全 四十三年六月書記 大正四三年三月浦項 支店勤務 至大正六年五月 咸鏡農工銀行 大正六年六月書記 本任勤務 全 廿月 營業課長代理 至大正七年九月 兵籍關係第貳乙步兵補充兵	
香山次郎	咸鏡農工銀行書記	銀行員	貿易精米業	雜貨商		昭和十九年十二月十日 自附依願解職 退職慰勞金 六千五百〇〇 三〇〇〇〇	
		塩川孝吾	高濱勇太郎	大久保保吉			



조선식산은행의 '퇴직사망대장'에는 행원의 신분, 본적, 출신학교, 전직업, 소개인의 주소, 직업, 이름, 보증인의 주소, 직업, 이름, 특기사항이 기재되어있다(그림 1)). 또한 행원의 입행이후의 직종, 소속, 봉급, 승급, 승진, 수당지급여부 등 직장 내 경력에 대해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행원 직장 내 경력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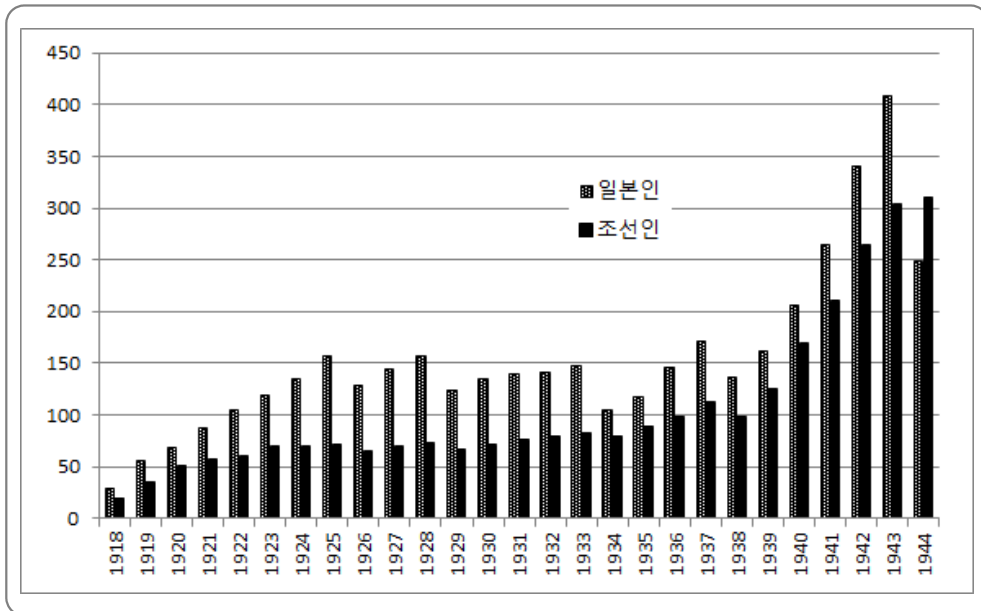
年 月 日	職 名	所 屬 (役名)	俸 給	特別手當	摘 要
7. 10. 1	書記補	元山支店	44		成茂基工依(11)延
8. 4. 1	書記				職務規程改正依
9. 8. 1			49		昇給
1. 12. 1			59		
9. 1. 1			65		
2. 11. 1			91		
2. 3. 3				25	交際手當
10. 1. 1			96		昇給
1. 10. 11		新義州支店			新義州支店勤務命令
1. 3. 3				25	交際手當
11. 6. 1	行員	宣川支店長	103		昇給
1. 11. 13			40		宣川支店長命令
12. 1. 1			118		昇給
14. 1. 1			133		
2. 1. 1			148		昇給
2. 3. 5		梅查役		30	轉勤
4. 1. 1			163		昇給
4. 3. 1			181		俸給引直
6. 1. 1			158		昇給
6. 3. 4		禮里支店長		60	轉勤
7. 1. 1				50	手當減額
8. 7. 1			213		昇給
11. 1. 1			233		
11. 5. 5		群山支店長		60	轉任
13. 2. 9		元山支店長		80	轉勤
12. 7. 1			253		昇給
16. 1. 1			270		
10. 2. 15		咸興支店長		80	轉任
12. 7. 1			282		昇給
19. 1. 1	參事				
19. 7. 1				300	
19. 12. 10					退職

본 논문은 이 두 자료에 해당되는 7,184건의 자료에 기재된 중 등등학력(수학연수 8년 이상 11년 이하)과 고등학력(수학연수 13년 이상 16년 이하)의 학력보유자에 대한 1,0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대상 행원의 졸업학교, 각 학교의 수학연수 및 분류를 보면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그림 3〉 조선식산은행 행원 출신학교 분류 및 수학연수

구분	수학연수	분류	학교
고등	16	제국대학	도쿄, 교토, 큐슈, 경성
		대학	고베상업, 동경상과
			게이오, 와세다, 메이지
			도지사, 추오, 릿쿄, 고베, 호세이, 탁쿠쇼큐
			와세다전문, 메이지전문, 리츠메이칸전문, 호세이전문, 게이오고등
	14	전문대학	가고시마고등농림, 아오야마고등, 요코하마전문, 경성법학전문, 보성전문, 연희전문, 숙명여자전문
	13	고등실업학교	아마구치고상, 미에고등농림, 고베고상, 후쿠오카고상, 오타루고상, 경성고상, 수원고등농림, 목포공립상
중등	11	실업/중학/고등여	선린, 부산공립상, 진남포공립상, 고지현립농, 부산공립상, 인천공립상, 경성공립상, 대구공립상, 대구공립농, 마산공립상, 함흥공립상, 개성공립상, 이리공립농, 강경공립상, 남대문상, 동성상, 경성고등보통, 평양중, 경성고등여, 평양공립고등여, 함흥공립고등여, 목포공립여
	10	여자실업	후쿠오카여자농, 경성여자공립실업, 경기여자공립실업
	9	실업/여실	도쿄여자상, 시모노세키상, 개성공립상, 강경공립상, 마산공립상
	8	고등보통	동경고등소, 가고시마고등소, 경성고보, 대구공립고등소,

〈그림 4〉 연도별 데이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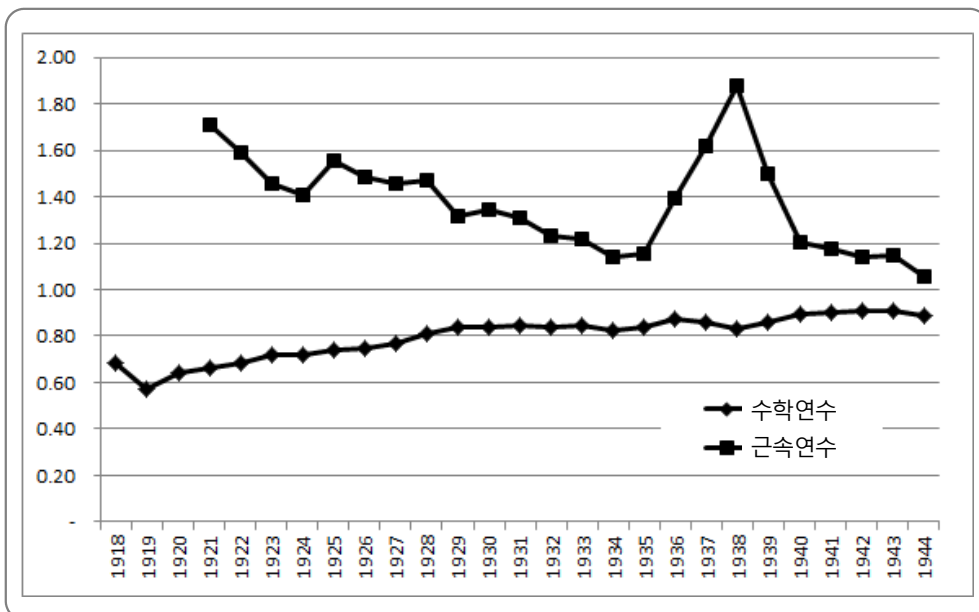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행원 데이터의 한계는 1920년 이전과 1930년대 후반이후의 정보량과 전시기에 걸친 정보량이 비대칭이라는 점이다(〈그림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는 일제시대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여 개인별 학력 및 근속연수와 임금의 연동을 확인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자료이다. 조선식산은행의 인사자료 전반에 대해서는 선재원(2010), ‘퇴직사망대장’ 자료에 관해서는 차명수 외(2014)에서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관련 소개를 생략하기로 한다.

### Ⅲ. 수학연수, 근속연수, 학력의 격차

#### 1. 민족 간 수학연수 및 근속연수 격차

민족 간 수학연수의 격차는 전체시기에 걸쳐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그림 5〉). 일본인 평균 수학연수가 1918년 11.00년에서 1944년 12.42년으로 증가한 반면, 조선인 평균 수학연수는 1918년 7.50년에서 1944년 11.07년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평균 수학연수 차이가 3.50년에서 1.35년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이었다(〈부표 1〉). 일본인 평균 수학연수가 1922년에 12.58년을 기록한 이후 큰 변동이 없었기에, 그 이후의 민족 간

〈그림 5〉 민족(조선인/일본인)간 남자 수학연수 및 근속연수 격차 추이



수학연수 격차의 축소는 조선인 평균 수학연수의 증가에 의해 실현된 것이었다. 한편 1919년에 민족 간 평균 수학연수의 차이가 갑자기 확대된 이유는 일본인 분석대상 총 2명 모두 수학연수 11년이었던 1918년에 비해 일본인 분석대상 총 7명중에 수학연수가 17년인 제국대학(동경대, 교토대) 출신 각각 1명 그리고 수학연수가 14년인 카고시마(鹿兒島)농림학교 출신 1명이 입학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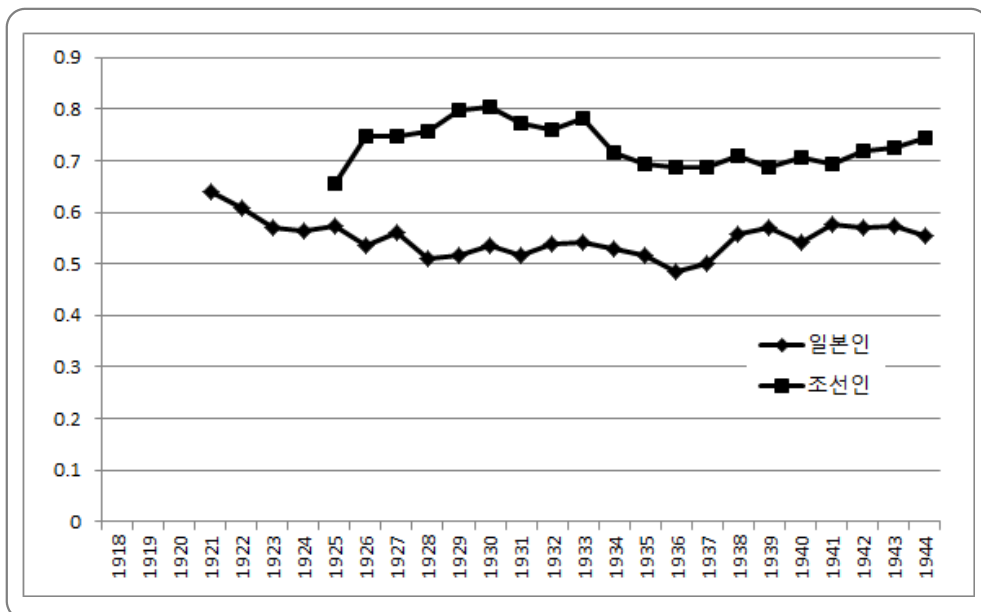
민족 간 근속연수 격차는 근속연수가 확인되는 1921년부터 축소되다가 1935년부터 1938년까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가 1939년부터 다시 축소되어 1944년에는 비슷한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일본인 근속연수가 분석대상 전체시기에 걸쳐 조선인 근속연수에 비해 짧다는 점이다.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전직의 빈도가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에게 전직의 기회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인 근속연수는 193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 조선인 근속연수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었다. 이는 일본인의 전직기회가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학력 간 격차

### 1) 재직연수별

일본인 중등학력자는 1921년에 일본인 고등학력자 봉급의 64%를 지급받았는데, 이

〈그림 6〉 학력(중등/고등)간 남자 민족별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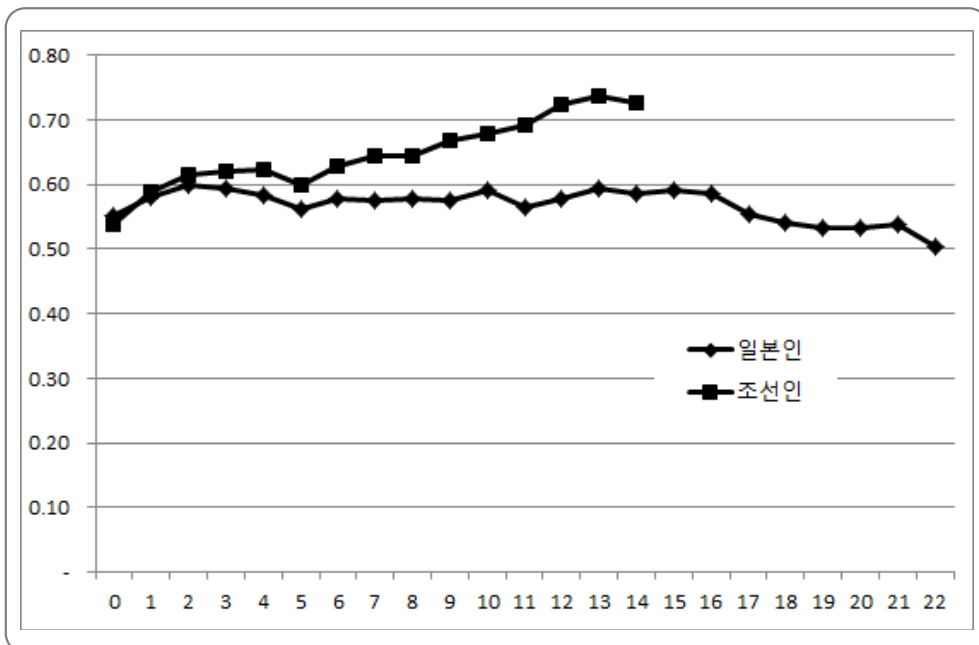
후 변동은 있었지만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1936년에는 48%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그림 6>). 이후에는 격차가 축소되어 1944년에 55%까지 이르렀지만 1921년의 수준에 다다르지는 못했다.

조선인 중등학력자는 1925년에 조선인 고등학력자 봉급의 66%를 지급받았는데, 임금격차가 축소되어 1930년에 80%에 이르렀다. 이후 임금격차는 확대되어 조선인 중등학력자가 1935년에 조선인 고등학력자 봉급의 69%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1941년까지 이러한 수준이 지속되다가 1942년 이후 축소되기 시작하여 조선인 중등학력자가 1944년에 조선인 고등학력자 봉급의 69%를 지급받았다. 조선식산은행 조선인의 학력별 임금격차는 1925년과 비교하여 1944년에 3% 축소되었지만 크게 축소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2) 근속연수별

개인별 인사기록 데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근속연수별 임금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림 7>). 일본인 중등학력자는 입행할 때 일본인 고등학력자의 55%의 월급을 지급받은 뒤 2년차에 60%까지 상승했다가, 5년차까지 격차가 확대되어 56% 수준에 다다른다. 이후 변동은 있었지만 60% 미만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16년차 이후

〈그림 7〉 학력(중등/고등)간 남자 민족별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오히려 격차가 계속 확대되어 21년차에 54%, 22년차에 50%로 이행 당시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수준을 밑돌았다.

조선인 중등학력자는 이행할 때 조선인 고등학력자의 54%의 월급을 지급받은 뒤에 5년차에 60%로 4년차의 62%보다 격차가 확대되지만, 격차는 꾸준히 해소되어 13년차에는 74%까지 육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14년차부터 격차가 다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속연수별 학력 간 조선인 임금격차 추이는 축소와 확대가 일본인보다 뚜렷하였고, 일본인보다 확대의 시기가 5년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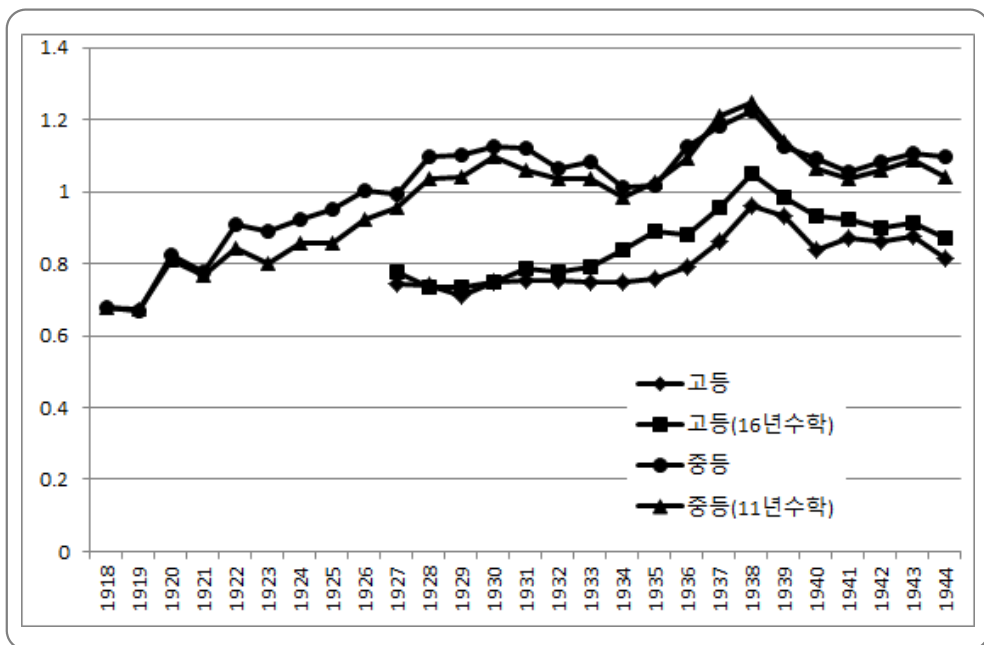
## IV. 민족 간 임금격차

### 1. 시계열 분석

#### 1) 재직연수별

조선인 중등학력자의 월급은 1918년에 일본인 중등학력자의 68%였는데 1926년에 같은 수준에 다다랐다(<그림 8>). 1930년에는 112%로 정점에 달한 뒤에 1934년에 일

〈그림 8〉 민족(조선인/일본인)간 남자 학력별 임금격차



본인과 같은 수준으로 되었다가, 1935년부터 193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일본인 중등학력자의 125%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이후 다시 하락하여 1944년에 1930년 수준인 110%가 되었다. 조선인 중등학력자 월급수준이 1918~1926년에 지속적으로 일본인 중등학력자 월급수준에 가까워졌던 이유는 일본인의 평균근속연수가 길어지고 있었으나 조선인의 평균근속연수보다 길지 않았고 조선인의 평균수학연수가 지속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이다(〈그림 5〉). 1935~1938년에 조선인 중등학력자의 평균월급이 일본인 중등학력자의 평균월급에 비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조선인의 평균 근속연수가 일본인에 비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었다(〈그림 5〉). 또한 1938~1941년에 중등학력자의 민족 간 평균월급 격차가 축소된 주요원인은 일본인 중등학력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중등학력자의 민족 간 학력별 임금격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중등학력자 중에서 갑종상업학교 졸업자(수학연수 11년)만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았다. 졸업직 후 이행한 수학연수 11년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임금격차는 1930년대 중반까지 중등학력자 전체의 추이보다 작았다. 이후 임금격차의 추이는 유사했지만, 1944년에 수학연수 11년의 조선인 행원과 일본인 행원의 임금격차는 1944년에 중등학력자 전체의 임금격차보다 작았다.

조선인 고등학력자의 월급은 1927년에 일본인 고등학력자 월급의 74%였고, 1936년부터 상승하여 1938년에 96%까지 육박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하락하여 1944년에 81%까지 떨어졌다. 고등학력자 중에서 대학졸업자(수학연수 16년)만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면, 고등학력자 전체의 추이와 유사하게 변동하나 임금격차의 수준은 작았다. 조선인 고등학력자는 조선인 중등학력자와는 달리 전시기에 걸쳐 일본인 고등학력자보다 적게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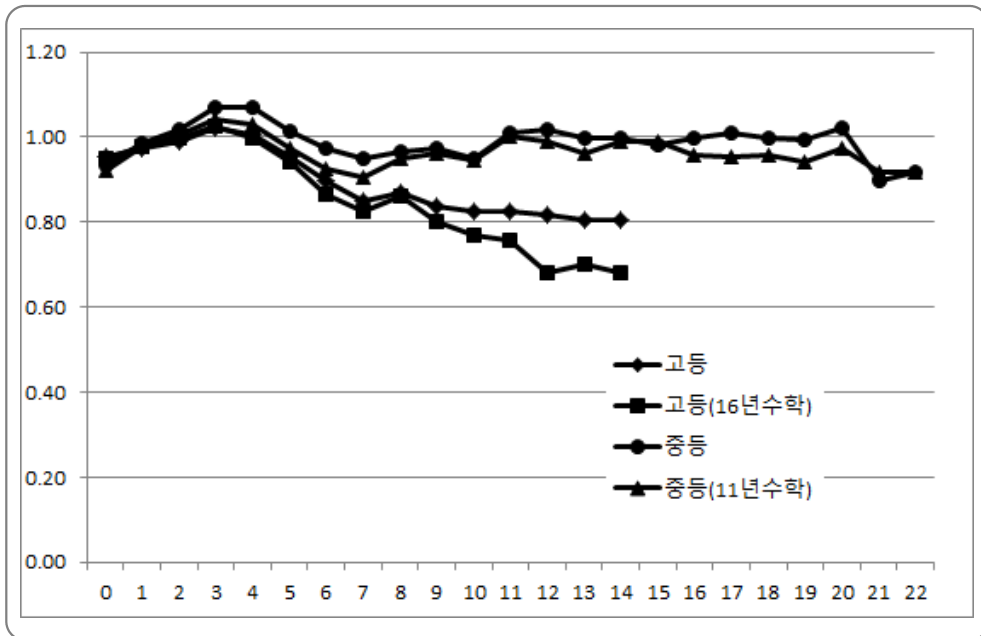
## 2) 근속연수별

조선인 중등학력자의 전체평균 초임은 일본인 중등학력 초임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2년차부터는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하여 10년차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그림 9〉). 조선인 중등학력자 전체의 월급은 11년차부터 20년차까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일본인 중등학력 월급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1년차와 22년차에 연속하여 격차가 벌어졌다. 수학연수 11년의 조선인과 일본인을 비교해보면, 중등학력 전체의 추이보다 변동 폭이 적었다. 그렇지만 중등학력 전체와는 달리 수학연수 11년의 조선인은 12년차부터 22년차까지 일관하여 일본인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다.

고등학력 민족 간 임금격차는 중등학력보다 컸다. 즉 고등학력 조선인 고등학력자의 초임은 일본인 고등학력자보다 낮았지만 2년차에는 같은 수준까지 상승했고 4년차까

지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인 고등학력자의 월급은 5년차에 고등학력 일본인 행원 월급의 95%까지 하락한 뒤에 계속 하락하여 14년차에는 80%까지 하락했다. 한편 대학졸업자의 민족 간 임금격차는 고등학력자 전체의 임금격차 보다 커 14년차에 조선인 대학졸업자는 일본인 대학졸업자의 68%를 지급받았다.

〈그림 9〉 민족(조선인/일본인)간 남자 학력별 근속연수별 임금격차



## 2. 임금격차분해

### 1)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

여기에서는 Oaxaca(1973)의 임금격차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일제시대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을 도출한 김종한(1998)에 의거하여 식산은행 행원의 임금 결정의 요인을 생산성 요인과 민족적 차별을 포함한 기타요인으로 분해하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Becker(1971)에 의하면 두 집단의 상이한 노동생산성에 의한 시장차별계수(market discrimination coefficient : D)는 관측된 비율과 차별이 없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임금비율 간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는데, Oaxaca는 이러한 차별계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D = \frac{\frac{\overline{W^j}}{\overline{W^k}} - \left[ \frac{\overline{W^j}}{\overline{W^k}} \right]^0}{\left[ \frac{\overline{W^j}}{\overline{W^k}} \right]^0} \quad (1)$$

여기서  $[\overline{W^j}/\overline{W^k}]$ 는 관측된 두 집단의 평균 임금비율을 말하고(본 분석에서는 실제 관측된 일본인의 평균임금( $\overline{W^j}$ )과 조선인의 평균 임금( $\overline{W^k}$ )의 비율)을 말하고,  $[\overline{W^j}/\overline{W^k}]^0$ 은 차별이 없는 경우 두 집단의 평균 임금비율을, 곧 차별이 없는 경우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균임금 비율을 의미한다. 식 (1)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ln(D+1) = \ln\left(\frac{\overline{W^j}}{\overline{W^k}}\right) - \ln\left(\frac{\overline{W^j}}{\overline{W^k}}\right)^0 \quad (2)$$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비용극소화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 두 집단 곧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균임금비율은  $\left(\frac{\overline{W^j}}{\overline{W^k}}\right)^0 = \left(\frac{MP^j}{MP^k}\right)$ 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MP_j$ 와  $MP_k$ 는 각각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균적인 한계생산력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2)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김중환 1998).

$$\ln \overline{W^j} - \ln \overline{W^k} = \ln MP_j - \ln MP_k + \ln(D+1) \quad (3)$$

식(3)은 두 집단,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격차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평균적인 생산성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 $\ln MP_j - \ln MP_k$ )와 차별 등 기타요인에 의한 임금 차이( $\ln(D+1)$ )로 분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자연로그 평균임금( $\ln \overline{W}$ )은  $\sum_{i=0}^n \widehat{B}_i \overline{X}_i$ 로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overline{X}_i$ 는 임금을 결정하는 변수들의 평균을 나타내고,  $\widehat{B}_i$ 는 임금 결정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식(3)의 좌변 곧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격차는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overline{W^j} - \ln \overline{W^k} = \sum \widehat{B}_i^j \overline{X}_i^j - \sum \widehat{B}_i^k \overline{X}_i^k \quad (i=0, 1, 2, 3, \dots, n) \quad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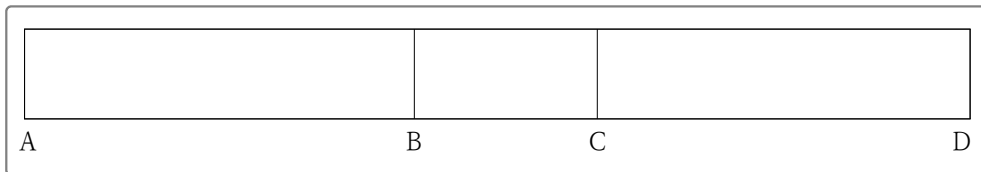
식(4)의 우변은 식(5)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ln \overline{W^j} - \ln \overline{W^k} = \sum \widehat{B}_i^j (\overline{X}_i^j - \overline{X}_i^k) + \sum \overline{X}_i^k (\widehat{B}_i^j - \widehat{B}_i^k) \quad (5)$$

식(5)의 우변에서 첫 번째 항 $[\sum \widehat{B}_i^j(\overline{X}_i^j - \overline{X}_i^k)]$ 은 일본인과 조선인간 임금의 생산성에 의한 격차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항 $[\sum \overline{X}_i^k(\widehat{B}_i^j - \widehat{B}_i^k)]$ 은 일본과 조선인간 임금의 민족차별 등에 의한 격차를 의미한다.

만약 식민지시기 일본인의 임금이 AD, 조선인의 임금이 AB라고 한다면(그림10),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BD이며, 임금격차 BD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생산성 차이(학력, 근속연수, 경력 등)에 의한 부분(BC)과 민족차별 등 기타요인에 의한 부분(CD)로 분해 할 수 있다.

〈그림 10〉 민족 간 임금격차 분해 단순화 모형



앞의 식 (5)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이 생산성에 의한 임금 격차 부분(BC)이고 두 번째 항이 민족차별 등 기타요인에 의한 부분(BD)이라고 할 수 있다.

## 2) 임금함수모형

여기에서 Oaxaca의 임금격차 분해를 위한 일본인 근로자와 조선인 근로자의 임금 함수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ln W = \alpha + \beta_1 CARR + \beta_2 YEAR + \beta_3 TERM + \beta_4 MIDD + \beta_5 HIGH$$

( $\ln W$  : 월 임금, CARR : 입사전 고용경력, YEAR : 근속연수, TERM : 연도 더미, MIDD : 중등학력 더미, HIGH : 고등학력 더미)

이 분석의 임금함수에서 종속변수인 임금은 월단위로 일본 및 조선인 근로자가 받는 봉급 총액에 자연로그를 취한 것이다. 이 분석은 1940년대의 식산은행 행원의 임금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격차를 분해하는 것이다. 1940년대의 임금함수는 1944년도(466 case)의 식산은행 임금자료를 이용하였다.

임금함수를 추정하는 특성변수로 경력, 근속연수, 학력 더미 변수를 투입하였다. 여기서 경력은 행원들이 식산은행에 입사하기 전의 다른 기업에서의 근무경력연수로 측정하였으며, 근속연수는 식산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한 연수로 측정하였다. 임금함수 추



정에 연령 변수를 고려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 연령과 근속연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있어, 근속연수 변수만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학력변수는 초등학교 졸을 기준변수로 하여, 중등 졸, 고등 졸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였다.

### 3) 임금함수 추정결과

이 분석은 1940년대 식산은행 행원의 임금을 민족적 차별 등 기타요인과 생산성 요인으로 분해함으로서 식산은행에 근무했던 일본인 행원과 조선인 행원의 임금격차에서 민족적 차별의 영향을 추정하려 한다.

〈표 1〉은 1944년 식산은행에 근무하는 일본인 행원과 조선인 행원의 임금함수 추정 결과이다. 일본인 행원 임금함수 모형의 설명력은 90.6%로 독립변수들인 경력, 근속연수, 중등학력 더미변수, 고등학력 더미변수가 log임금 변량의 90.6%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명력이 대단히 높다. 조선인 행원 임금함수 모형의 설명력은 82.4%로,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log임금 변량의 82.4%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또한 설명력이 매우 높다. 일본인 행원 임금함수 모형은 유의수준 .01에서 경력, 근속연수, 중등학력 더미, 고등학력 더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조선인 임금함수 모형은 유의 수준 .01에서 근속연수, 중등학력 더미, 고등학력 더미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임금함수 추정결과(1944)

	일본인		조선인	
	평균	회귀계수(B)	평균	회귀계수(B)
상수		3.125**		3.363**
경력	1.6329	.014**	.7291	-.006
근속연수	4.4768	.061**	4.1970	.054**
중등 졸	.8354	.450**	.7882	.364**
고등 졸	.1561	.981**	.1527	.828**
F 값	558.129** (df=4)		231.655** (df=4)	
R <sup>2</sup>	.906		.824	
N	237		203	
lnW	3.9512		3.9981	

일본인 근로자들은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동일하다면, 경력이 높을수록, 근속연수가 길수록, 초등 학력보다 중등학력이나 고등학력인 근로자가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조선인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동일할 때, 근속연수가 길수록, 초등학력 근로자보다 중등학력이나 고등학력 근로자가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결과 밝혀졌다. 조선인 경력효과가 -로 나타난 것은 조선인의 경우 고등학력 행원의 학력효과가 경력효과를 압도했다는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 4) 일본인과 조선인의 임금격차 분해

〈표 2〉는 1944년 식산은행에 근무하던 일본인 행원과 조선인 행원의 임금격차를 Oaxaca의 임금격차 분해 모형을 이용하여 생산성 요인과 민족 차별 등 기타요인으로 분해한 것이다. 1944년 식산은행에 근무하던 일본인 행원이 조선인 행원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았던 부분의 28.9%는 일본인의 생산성 관련 특성 예컨대 경력, 근속연수, 학력 등이 더 우월하였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고, 나머지 71.4%는 생산성과 무관한 요인, 즉 민족 차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 민족 간 임금격차 분해(1944)

	생산성 요인	민족차별 요인
경력	0.013035	0.014828
근속연수	0.017085	0.030634
중등학력	0.021277	0.068029
고등학력	0.003342	0.023246
총계	0.054739(28.6%)	0.136737(71.4%)

이러한 분석결과는 식산은행에 근무했던 일본인 행원과 조선인 행원 간 임금격차는 생산성 요인보다 생산성 무관한 요인, 즉 민족차별 등 기타 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 V. 맺음말

기존연구에서 지적했던바와 같이 재직연수별 학력 간 임금격차는 확대 또는 축소 어느 쪽으로 진행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개인별 인사기록 데이터의 이점을 살려 근속연수별 학력 간 임금격차를 살펴본 결과, 일본인의 경우 근속 후반부에 격차가 확대되었다. 조선인의 경우, 학력 간 임금격차가 축소되었는데, 중반이후 확대되기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직연수별 민족 간 임금격차는 축소되어갔는데, 중등학력의 경우는 근속연수가 일본인보다 긴 조선인의 월급이 일본인을 넘어섰다. 그렇지만 고등학력의 경우에는 조선인의 월급이 일시적으로 일본인을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해방직전까지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 한편 근속연수별 중등학력의 민족 간 임금격차는 재직연수별 추이와는 달리 근속연수 전반부에 축소와 확대를 기록한 뒤에 격차가 거의 없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후반부에 확대되었다. 고등학력의 경우 근속연수 전반부에 일시적으로 축소된 뒤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대학졸업자의 경우에는 민족 간 임금격차의 정도가 심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제시대의 최고급 일터에서 중등학력의 조선인은 긴 근무연수로 일본인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고등학력의 조선인은 해방직전까지 임금격차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임금격차분해 모형에 기초하여 민족 간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1940년대 식산은행에서 근무하던 조선인 행원과 일본인 행원의 임금격차는 생산성차이보다 민족차별 등 생산성과 무관한 요인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1940년대 일본인 행원이 조선인 행원보다 평균 임금이 높았던 것의 28.6%는 생산성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71.4%는 생산성 요인과 무관한 요인 즉 민족차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동일한 모형으로 1928년 토목건축노동자의 민족 간 임금격차의 요인을 분석하여 25.0%는 생산성 요인(숙련관련 격차)으로 설명되지만, 75.0%는 생산성 요인과 무관한 요인 즉 민족차별 등이 작용했다고 분석한 김종한(1998)과 대비하면 전시기에도 생산성 요인이 아닌 민족차별 등 민족 간 임금격차의 지배적 요인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조선식산은행, 「퇴직사망자대장」.

김낙년(2012),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김낙년·박기주(2010), “해방 전(1906~1943) 조선의 임금 재론: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임금을 중심으로,” 「경제사학」, 49, 3-37.

김종한(1998), “1928년 조선에서의 민족별 임금차별: 토목건축관계 노동자의 임금격차 분해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24, 69-96.

선재원(2010), “한국 화이트칼라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조선식산은행(현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1918~1953,” 「경영사학」, 25, 97-112.

이우연·차명수(2007), “식민지 조선의 임금 수준과 구조,” 「경제사학」, 43, 41-66.

정병욱(2003),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근대주체 형성: 조선식산은행원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11, 103-141.

정병욱(2007), “조선식산행원, 식민지를 살다,” 「역사비평」 78, 322-357.

차명수·황준석·이우연(2014),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의 학력별 임금 격차, 1922~2011,” 「경제사학」, 56, 83-114.

허수열(1981), “일제하 실질임금(변동)추계,” 「경제사학」, 5, 213-246.

Becker, G. S.(1971),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Moskowitz, K.(1979), “Current assets: the employees of Japanese banks in colonial Korea”,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Oaxaca, R.(1973),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693-709.

## A White Collar's Wage Gap in Colonial Korea: The Analysis of Chosenshokusan Bank's Retired Died Employee Record, 1918~1944

Jae Won Sun\* · Byong Don Shon\*\* · Hyun Park\*\*\*

### Abstract

We examined the wage gap between middle level and high level education or Korean and Japanese as well as its causes via the micro personnel data of Chosenshokusan Bank its called 'Retired Died Employee Record.'

The wage gap between middle level and high level education enlarged not only in case of Japanese employees but in case of Korean employees following service length.

The wage gap between Japanese employee and Korean employee reduced in case of middle level education but enlarged in case of high level education. Especially, the difference of wage gap between college educated Japanese employee and college educated Korean employee was very great.

We recognized that productivity factor ratio of wage gap between Japanese and Korean employee was 28.6% during the other of productivity factor ratio including race discrimination factor was 71.4% in 1940s through the analysis of wage gap disaggregative model.

〈Key Words〉 Colonial Korea, White Collar, Wage Gap, Race Discrimination, Wage Gap Disaggregative Model, Chosenshokusan Bank, Retired Died Employee Record, Micro-data

\* Professor, Facul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yeongtaek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Pyeongtaek University.

\*\*\*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부표 1〉 민족별 남자 수학연수 및 근속연수

(단위 : 년)

	수학연수		근속연수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18	11.00	7.50		
1919	13.50	7.75		
1920	13.25	8.55		
1921	13.05	8.64	0.86	1.46
1922	12.58	8.63	1.44	2.30
1923	12.41	8.94	1.89	2.75
1924	12.43	8.94	2.66	3.75
1925	12.39	9.17	2.90	4.50
1926	12.12	9.09	3.26	4.83
1927	12.29	9.47	3.59	5.23
1928	11.98	9.74	4.03	5.93
1929	12.27	10.29	4.70	6.18
1930	12.31	10.31	5.21	7.00
1931	12.27	10.34	5.84	7.63
1932	12.27	10.29	6.84	8.43
1933	12.29	10.39	7.40	9.02
1934	12.50	10.30	7.58	8.64
1935	12.39	10.37	7.36	8.48
1936	12.08	10.58	6.08	8.46
1937	12.34	10.60	5.56	8.98
1938	12.56	10.47	4.94	9.29
1939	12.58	10.79	5.34	8.00
1940	12.34	11.06	5.22	6.30
1941	12.30	11.07	5.38	6.30
1942	12.25	11.13	6.28	7.16
1943	12.29	11.13	7.11	8.16
1944	12.42	11.07	8.03	8.48

〈부표 2〉 남자 학력별 민족별 재직년별 평균임금

(단위 : 엔)

	고등(12년 이상 수학)		고등(16년 수학)		중등(7~11년 수학)		중등(11년 수학)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1918					17	12	17	12
1919					25	17	25	17
1920					30	24	30	24
1921	59		52		38	29	38	29
1922	61		54		37	34	39	33
1923	65		60		37	33	42	34
1924	68		62		39	36	43	37
1925	69		65		40	38	45	39
1926	77		71		41	41	48	44
1927	77	57	75	58	43	43	48	46
1928	82	60	80	59	42	46	47	49
1929	91	65	92	67	47	52	53	56
1930	93	70	93	70	50	56	54	59
1931	98	74	96	76	51	57	56	60
1932	101	76	99	77	54	58	60	62
1933	103	77	102	80	56	60	62	64
1934	106	79	102	85	56	57	61	60
1935	106	80	98	88	55	56	59	60
1936	103	81	95	84	50	56	55	60
1937	98	85	89	86	49	58	51	61
1938	90	87	79	83	50	61	51	64
1939	90	84	80	79	51	57	51	58
1940	91	76	83	77	49	54	50	53
1941	94	82	88	82	54	57	55	57
1942	101	87	96	86	58	62	59	62
1943	106	93	100	92	61	67	62	67
1944	117	95	114	99	65	71	68	71

〈부표 3〉 남자 학력별 민족별 근속연수별 평균임금

(단위 : 엔)

	고등(12년 이상 수학)		고등(16년 수학)		중등(7~11년 수학)		중등(11년 수학)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0	61	58	67	64	34	32	35	32
1	64	62	69	68	37	37	39	38
2	68	67	72	72	41	41	43	43
3	73	74	77	79	43	46	45	47
4	77	77	81	81	45	48	48	49
5	84	80	89	84	47	48	51	49
6	91	81	95	82	52	51	57	52
7	100	85	105	87	57	54	62	56
8	103	90	107	92	60	58	63	59
9	110	92	113	91	63	61	66	63
10	117	97	122	94	69	66	71	68
11	122	101	127	96	69	70	72	72
12	127	103	129	88	73	75	77	76
13	133	107	130	91	79	79	83	80
14	140	113	134	91	82	82	85	84
15	148		141		87	86	88	87
16	152		122		89	89	94	90
17	169		144		94	95	100	95
18	182		144		98	98	103	99
19	194		154		103	103	110	103
20	201		154		107	109	113	110
21			171		126	113	126	113
22			181		129	118	129	118

